



성역할 관련 태도가 강간통념 수용에 미치는 영향

김 애 리¹⁾ · 박 정 열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형법에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서 강간을 판단하려면 그 조건이 까다롭고 상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적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성폭행이라는 범죄가 폭력행위와 협박이 동반되는 상황에서 자칫 이러한 조건 규정은 강간의 범주를 축소시키거나 혹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강간 및 강간에 준하는 다양한 성범죄 및 성적 공격행위는 만연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범죄발생 역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Analytical report on crimes, 2003). 따라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성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대책 및 그와 관련된 연구들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여성주의 이론이 등장하고 성폭력과 관련된 변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척도들이 Burt(1980)의 연구 이후 개발되면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주로 강간 발생가능성 혹은 행위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개인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이었다. 이들 연구들은 강간자와 비강간자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태도나 강간통념 수용 등과 같은 요인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강간통념이란 사회 구성원들에게 잘못됐지만 성적으로 공격

적인 행동을 면하게 해주는 폭넓게 수용된 신념을 의미한다(Lonsway & Fitzgerald, 1994). 이러한 강간통념 수용은 공정 세상관의 일반적 신념과 정적으로 상관이 있음(즉 강간은 추잡하게 행동하거나 다른 도덕적 결함을 보여주는 여성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이지, 행동이 조신하고 도덕적인 여성에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 확인되었다(Bohner, Siebler, & Schmelcher, 2006). 따라서 문제가 있는 특정 여성만 강간을 당할 것이라는 통념은 모든 여성들이 누구나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취약성을 덮어버리거나 혹은 이러한 가능성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O'Donohue, Yeater, & Fanetti, 2003; Lonsway & Fitzgerald, 1994). 성적으로 공격적인 남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한 남성들에 비해 강간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였으며(Burt, 1980; Field, 1978; Lanier, 2001), 더 강한 적대적 성신념을 지니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더 많이 표명하였으며, 대인폭력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urt, 1980; Koss & Dinero, 1987).

한편 국내에서 이루어진 강간통념과 관련된 연구들은 강간통념 수용과 다른 관련 변인들(예, 성역할과 관련된 태도, 공감정도, 주관적 성적 흥분정도 등)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주된 연구대상은 강간사건 관련종사자(Kim, 1989), 청소년 범죄자와 성인 범죄자(Sim, 2001), 남자 대학생과 수감자(Lee, 1999), 여자 대학생(Carmody & Washington, 2001), 여중생(Kim, Jeon, & Kim, 2004) 등 이었고, 이들 연구 외에 Lee와 Choi(2001)는 남녀 대학생들의 강

주요어 : 강간, 강간통념, 성역할 태도, 성차, 강간통념 척도

1) 성신여자 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연구교수(교신저자 E-mail: lovepassion@korea.com)

투고일: 2008년 1월 7일 심사완료일: 2008년 2월 19일

간통념 수용도를 비교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는 조사 대상자들의 강간통념 수용은 남성본위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정적 상관을 가지며, 보통사람들에 비해서 범죄자들이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고, 여자에 비해 남자들의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에서 아쉬운 점은 강간통념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남녀 간의 성차를 조사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Lee & Choi, 2001; Lee & Kang, 2005)이며, 특히 Lee(1999)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강간통념 수용과 성역할과 관련된 태도들 간의 종합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미흡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테이트 강간 혹은 강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목되어온 성역할과 관련된 태도와 강간통념 수용간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강간의 확산에 기여한다고 보는 강간통념 수용과 지금까지 다양하게 연구되어온 성역할과 관련된 태도들 간의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규명해 보기 위한 차원에서 하나의 단일한 척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강간통념 수용 척도와 성역할과 관련된 태도 척도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하려는 이유는 새로운 통념척도 구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강간통념 수용과 성역할과 관련된 태도들 간의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또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위해 강간통념이 다른 유형의 성폭행보다도 테이트 강간의 맥락에서 인지적 왜곡의 개입 및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어서 일반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강간통념 수용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관련 태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강간통념 수용과 성역할 관련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대상자의 강간통념 수용에 대한 성역할 관련 태도의 영향력을 파악한다.

용어 정의

● 강간통념 수용(Rape myth acceptance)

강간통념이란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광범위하면서 꾸준히 유지되어온 것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공격을

정당화하거나 부인하는 작용을 하는 태도와 신념들(Lonsway & Fitzgerald, 1994)을 의미하며, 강간통념 수용이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간통념 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에서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척도인 Lottes(1988)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강간지지 척도, Illinois 대학의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강간통념 수용 척도(Payne, Lonsway, & Fitzgerald, 1999), 그리고 Burt(1980)의 강간통념 수용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국내에서 개발한 Lee(1999)의 20문항으로 구성된 강간통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 성역할 태도(Gender-role attitude)

성역할 태도란 남성 혹은 여성에서 기대되는 행동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Im & Chung, 1997).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과 관련된 다양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alin과 Tilby(1978)의 연구에서 사용된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성역할 이념 척도,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Burt(1980)의 성역할 태도 척도, 26개 문항으로 구성된 Sinn(1997)의 남성 성역할 규범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강간통념 수용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강간통념이 테이트 강간의 맥락에서 인지적 왜곡이 크게 개입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즉 이성과의 만남을 위해 테이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령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태도들이 강간통념 수용과 어떤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대상자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서울시내 C 대학교 및 S 대학교와 경기도 소재 K 대학교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연구자의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대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약속한 후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질문지는 총 280

부가 배포되었으며, 이 중 256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의 응답 성실도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240부였다. 연구 대상은 남학생이 124명(51.7%), 여학생이 116명(48.3%)이었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은 37명(15.4%), 2학년은 73명(30.4%), 3학년은 85명(35.4%), 4학년은 45명(18.8%)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5세였다.

연구 도구

강간통념 수용을 기준 변인으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언급되어온 성역할 관련 태도들을 예측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강간통념 수용 척도 및 성역할 관련 태도 척도들은 관련 연구들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척도들을 사용하였다. 각 척도는 모두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 내용을 더 많이 수용하거나 동의함을 의미한다. 수정 번역된 도구와 하위 구성 요인의 명명에는 성폭력 연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타당성을 입증 받았다.

● 강간통념 수용 척도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정도를 평가 위하여 3개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Lottes(1988)의 강간지시 척도, Illinois 대학의 강간통념 수용 척도(Payne, Lonsway, & Fitzgerald, 1999), 그리고 Lee(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강간통념 수용 척도이다. 각각의 강간통념 수용 척도들에 대하여 남녀 간의 수용정도와 관련하여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 Lottes(1988)의 강간지시 척도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I에 대해서는 요인명을 ‘오해와 조작’으로 명명하였으며 Cronbach α 는 .91이었다. 요인 II는 ‘피해자 책임귀인’으로 명명하였으며 Cronbach α 는 .80이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III은 ‘남성 성욕’으로 명명하였으며 Cronbach α 는 .61로 나타났다. 이 세 요인은 전체변량의 5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Lee(1999)의 강간통념 척도

강간통념 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Burt(1980)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Lee(1999)의 강간통념 척도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척도개발 당시의 요인 분석에서는 6개의 요인이었으나 두 번째 연구에서는 4개의 요인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명은 요인 I에 대해서는 ‘피

해자 비난’으로 명명하였고 Cronbach α 는 .85이었다. 요인 II는 ‘행동에 대한 오해’로 명명하고 Cronbach α 는 .77이었으며, 요인 III은 ‘허위조작’으로 Cronbach α 는 .81이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IV는 ‘책임귀인’으로 Cronbach α 는 .72로 나타났다.

• Illinois 대학의 강간통념 수용 척도(Payne, Lonsway, & Fitzgerald, 1999)

원 판은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 척도에서는 8개의 요인이 확인되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분석결과 7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도구의 간명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축형 위주로 분석을 하였다.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을 요인분석 한 결과 모호하게 적재되는 2개 문항을 뺀 15개 문항에서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명은 앞서 사용된 Lotte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요인 I의 Cronbach α 는 .85, 요인 II의 Cronbach α 는 .87, 요인 III의 Cronbach α 는 .67로 나타났다.

● 성역할 관련 태도 척도

• 성역할 이념 척도(Kalin & Tilby, 1978)

성역할 이념은 Kalin과 Tilby(1978)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고정관념, 경력개발문제, 사회적 평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보임을 의미한다.

• Burt(1980)의 성역할 태도 척도

성역할 고정관념: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 행동의 적절성에 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일련의 공유된 기대와 관련된 신념들을 측정한다. 이 척도를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 α 는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보수주의: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 혹은 성행위에 대해서 경직되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 α 는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성신념: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우월의식을 나타내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것은 결국 여성에 대한 반감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 α 는 .75로 나타났다.

대인폭력수용: 이 개념은 폭력을 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보고 개인 간의 폭력을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국 이 척도는 완력과 강압이 친밀한 관계나 성적인 관계에서 응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는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 Sinn(1997)의 남성 성역할 규범 척도

역할규범 지위: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역할 규

범에 따라 남성에게 기대하는 이상적 행동과 역할을 측정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8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할규범 강인성: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성 고정관념에 입각해서 기대되는 전형적 남성성 혹은 남성적 행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Cronbach α 는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규범 반 여성주의: 여성성 혹은 여성 성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가치절하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 α 는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SPSS로 자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먼저 강간통념 척도들을 요인 분석하여 하위 구성요인들을 추출하였다. 강간통념과 성역할 태도 변인들에 대한 남녀 간의 수용 및 지각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고, 이어 통념들 간 그리고 통념과 성역할 태도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강간통념에 대한 성역할 태도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중다회귀(multiple regression)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에서 예측변인들의 설명력과 상대적 기여도를 규명하고자 stepwise 방식을 사용하고 결과에는 β 값도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강간통념 수용의 차이

여러 강간통념 수용 척도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조사에 이용된 척도들이 문항 당 5점 만점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을 3으로 본다면 남녀 모두 강간통념을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세 척도 모두에서 남녀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들이 강간통념을 여자들보다 더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세 가지 각 척도들의 하위요인들 간의 남녀 차

<Table 1> Gender differences for each rape myth acceptance scale

Type of scale	Gender	Mean(SD)	Mean difference	t(df)
Lottes' Rape supportive attitude scale	Male (n=122)	2.28(.53)	.54	7.84(232)***
	Female (n=112)	1.73(.52)		
Lee's Rape myths scale	Male (n=117)	2.24(.50)	.61	9.79(229)***
	Female (n=114)	1.63(.44)		
Illinois Univ. Rape myth scale	Male (n=119)	2.42(.47)	.55	8.33(229)***
	Female (n=112)	1.87(.53)		

*** p < .001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for sub-factors for each rape myth acceptance scale

Type of scale	Sub-factors	Gender	Mean(SD)	Mean difference	t(df)	
Lottes' Rape supportive attitude scale	Misunderstanding & manipulation	Male (n=122)	2.04(.59)	.56	7.91(233)***	
		Female (n=113)	1.48(.49)			
	Responsibility attribution	Male (n=123)	2.50(.63)	.60	6.63(221.99)***	
		Female (n=115)	1.90(.76)			
	Sexual desire of males	Male (n=123)	2.55(.66)	.31	3.47(236)**	
		Female (n=115)	2.24(.70)			
Lee's Rape myths scale	Victim blame	Male (n=123)	1.86(.61)	.34	4.37(235)***	
		Female (n=114)	1.52(.56)			
	Misunderstanding female behavior	Male (n=117)	2.28(.62)	.88	13.04(197.91)***	
		Female (n=115)	1.40(.40)			
	Fallacy manipulation	Male (n=123)	2.14(.67)	.61	8.06(223.11)***	
		Female (n=115)	1.53(.49)			
	Responsibility attribution	Male (n=124)	2.90(.72)	.69	6.89(238)***	
		Female (n=116)	2.21(.81)			
	Illinois Univ. Rape myth scale	Misunderstanding & manipulation	Male (n=119)	2.05(.57)	.51	7.12(230)***
			Female (n=113)	1.54(.51)		
		Responsibility attribution	Male (n=120)	2.57(.54)	.73	9.47(220.83)***
			Female (n=113)	1.84(.64)		
Sexual desire of males		Male (n=120)	3.11(.83)	.10	n.s.	
		Female (n=113)	3.01(.96)			

** p < .01, *** p < .001, n.s.= not significant

이도 비교해 보았다<Table 2>. 그 결과 Lee의 척도에서는 4개 하위요인 모두, 즉 피해자 책임, 여성행동오해, 허위조작, 책임귀인 등에서 차이를 보였고, Lottes의 척도와 Illinois 대학 척도에서는 오해와 조작, 피해자 책임귀인 두 가지에서 남녀 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Illinois 대학 척도의 남성성욕 부분이었다.

남녀 간의 시각차가 크게 나타난 부분은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와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남자들은 강간발생에 대해서 여자들이 유발했다거나 그 책임이 여성에 있다는 쪽의 통념을 더 수용하려 하였고 반면에 여성들은 이를 부정하였다. 남녀 간 차이를 보이지 않는 요인은 강간이 남성의 성욕 탓이라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3.1점대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용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관련 태도의 차이

성역할 관련 태도들에 대한 남녀 간의 시각차를 비교한 결과 성적 보수주의를 제외한 모든 태도들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Table 3>. 특히 성역할 이념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남녀 간의 시각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결국 남자들은 전통적이고 가부장적 태도를 더 많이 지니고 있으며, 또한 여성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필요하다면 폭력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자는 성별에 상응하는 지위를 가지고 강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자의 강간통념 수용과 성역할 관련 태도와의 상관관계

각 강간통념 수용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리 사회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확인한 Lee의 척도와 본 연구에서 변안하여 사용한 척도들 간에 .80이상의 상관이 나왔다는 사실은 이들 변안 척도들 역시 그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Table 4>. 특히 Lottes의 척도와 Illinois 대학 척도 간에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이들 척도들의 하위구성요소가 서로 비슷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for rape myth acceptance scales

	Lottes' Rape supportive attitude scale	Lee's Rape myths scale
Lee's Rape myths scale	.840** (n=228)	-
Illinois Univ. Rape myth acceptance scale	.880** (n=228)	.829** (n=224)

** p < .01

<Table 5>에 나타난바와 같이 강간통념 수용과 성역할 관련 태도 간에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계수는 사례수가 200이 넘는 것을 감안하고 임계치를 고려한다면 대단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성역할 관련 태도들 중 적대적 성신념, 성역할 이념, 대인폭력수용, 성역할 고정관념 등은 강간통념 수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Table 5>. 이러한 결과는 여성무시,

<Table 3> Gender differences for gender-role related variables

Gender-role related variables	Gender	Mean(SD)	Mean difference	t(df)
Gender-role ideology	Male (n=119)	2.80(.44)	.69	11.08(228)***
	Female (n=111)	2.11(.50)		
Gender-role stereotype	Male (n=122)	2.83(.55)	.68	8.98(234)***
	Female (n=114)	2.16(.60)		
Sexual conservatism	Male (n=121)	2.78(.57)	.12	n.s.
	Female (n=112)	2.66(.58)		
Hostile gender-belief	Male (n=120)	2.61(.51)	.49	6.74(234)***
	Female (n=116)	2.13(.48)		
Interpersonal violence acceptance	Male (n=119)	2.49(.70)	.39	3.99(231)***
	Female (n=114)	2.10(.59)		
Role model status	Male (n=118)	3.40(.56)	.38	4.75(232)***
	Female (n=116)	3.01(.51)		
Role model toughness	Male (n=119)	2.83(.52)	.34	4.49(232)***
	Female (n=115)	2.49(.51)		
Role model anti-feminism	Male (n=116)	2.81(.63)	.51	5.45(229)***
	Female (n=112)	2.30(.61)		

*** p < .001, n.s.= not significant

<Table 5> Correlation between for rape myth acceptance scales and gender-role related variables

Gender-role related variables	Lottes' Rape supportive attitude scale	Lee's Rape myths scale	Illinois Univ. Rape myth acceptance scale
Gender-role ideology	.643** (n=227)	.687** (n=225)	.687** (n=223)
Gender-role stereotype	.582** (n=223)	.663** (n=229)	.611** (n=229)
Sexual conservatism	.307** (n=230)	.305** (n=227)	.380** (n=228)
Hostile gender-belief	.701** (n=192)	.682** (n=189)	.720** (n=194)
Interpersonal violence acceptance	.627** (n=191)	.544** (n=188)	.631** (n=193)
Role model status	.302** (n=189)	.375** (n=186)	.344** (n=191)
Role model toughness	.402** (n=190)	.367** (n=187)	.410** (n=191)
Role model anti-feminism	.443** (n=184)	.441** (n=181)	.556** (n=185)

** p < .01

폭력에 대한 정당화 및 전통적 사고 및 행동 특성들이 강간과 관련된 잘못된 통념들을 더 잘 수용하도록 하는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강간통념 수용에 대한 성역할 관련 태도의 영향력

강간통념 수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이었던 Lottes의 강간지지 척도에 대한 성역할 관련 태도들의 회귀분석결과에서는 적대적 성신념, 대인폭력수용, 역할규범에서의 강인성 등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개의 변인들이 Lottes의 강간통념 수용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6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들 중 특히 적대적 성신념은 강간통념 수용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Table 6>.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Lottes' rape supportive attitude scale

Variables	R	R2	β	t
1 Hostile gender-belief	.687	.472	.412	6.96**
2 Interpersonal violence acceptance	.765	.586	.384	6.98**
3 Role model toughness	.787	.619	.206	3.81**

** p < .01

Lee의 강간통념 척도에 대한 성역할 관련 태도들의 회귀분석결과에서는 앞서 Lottes의 경우와는 달리 역할규범의 강인

성이 빠지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두 번째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Lee의 척도에서도 적대적 성신념이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이었으며, 대인폭력수용도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Lee's rape myths scale

Variables	R	R2	β	t
1 Hostile gender-belief	.666	.443	.371	5.55**
2 Gender-role stereotype	.725	.526	.314	5.21**
3 Interpersonal violence acceptance	.754	.568	.245	4.04**

** p < .01

Illinois 대학의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대한 성역할 관련 태도들의 회귀분석결과에서는 적대적 성신념, 대인폭력수용이 앞서 두 회귀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또한 성역할이념과 강인성이 작지만 그런대로 유의한 예측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간통념 수용에 대한 성역할 관련 태도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여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타인에 대한 폭력의 정당화가 강간통념 수용을 예측하는데 주

<Table 8> Regression analysis of Illinois University's rape myth acceptance scale

Variables	R	R2	β	t
1 Hostile gender-belief	.717	.514	.408	7.01**
2 Interpersonal violence acceptance	.776	.602	.275	4.99**
3 Gender-role ideology	.803	.645	.217	3.74**
4 Role model toughness	.812	.659	.133	2.57*

** p < .01

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논 의

대학생들의 강간통념 수용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는 통념 자체를 부정하는 쪽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통념을 더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척도의 하위 요인에 대한 집단간 차이 분석 결과를 보면 남자들은 강간사건 발생에 대해서 여자들이 강간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했고 남성은 여성의 행동을 오해하여 일어났다고 보거나 혹은 사건발생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여성들은 이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통념의 확산은 결국 가해자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는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되어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부조리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녀의 차이가 미약하였으나 남녀 모두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을 보이는 것이 강간발생 원인으로 남자의 성욕을 지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남녀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성역할 태도상에서 남녀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전통적이고 가부장적 태도를 더 많이 지니고 있으며, 또한 여성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필요하다면 폭력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자는 성별에 상응하는 지위를 가지고 강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사회가 많은 부분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모든 부분에서 평등을 지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역할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전통적인 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간통념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Lonsway와 Fitzgerald(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강간통념 수용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 간의 상관 및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적대적 성신념, 성역할 이념, 대인폭력수용, 성역할 고정관념 등의 성역할 관련 태도들이 강간통념 수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무시, 폭력에 대한 정당화 및 전통적 사고 및 행동 특성들이 강간과 관련된 잘못된 통념들을 더 잘 수용하도록 하는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여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타인에 대한 폭력의 정당화가 강간통념 수용을 예측하는데 주요 요인이고 그 외 역할규범 강인성,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이념이 강간통념 수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성적 공격자들이 강간통념을 더 강력하게 지지하고 (Feild, 1978), 더 강한 적대적 성신념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표명하며(Burt, 1980; Koss & Dinero, 1987; Malamuth, Check, & Briere, 1986), 대인 폭력을 더 많이 수용(Burt, 1980; Malamuth, 2002; Rapaport & Burkhart, 1984)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은 강간과 같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역할 관련 태도에 대한 교육이 어릴 적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간통념 수용과 같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는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강간통념 수용과 지금까지 강간통념 수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역할 관련 태도들과의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였으며 강간통념 수용 척도는 Lottes(1988)의 강간지지 척도와 Lee(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강간통념 척도 그리고 Illinois 대학의 강간통념 수용 척도(Payne, Lonsway, & Fitzgerald, 1999)를 사용하였다. 성역할 관련 태도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Kalin과 Tilby(1978)의 성역할 이념 척도, Burt(1980)의 성역할 태도 척도, Sinn(1997)의 남성 성역할 규범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t-test, 상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학생들의 강간통념에 대한 남녀 간 수용정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남녀 모두 강간통념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정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강간통념을 더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간통념 수용에 관한 각 척도의 하위 요인에 대한 집단간 차이 분석 결과를 보면 남자들은 강간사건 발생에 대해서 여자들이 강간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했으며, 남성이 여성의 행동을 오해하여 일어났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건발생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보였다. 반면 여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였다.
- 성역할 관련 태도들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적 보수주의를 제외한 모든 성역할 관련 태도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에 비해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더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들은 여성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폭력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자는 성별에 상응하는 직위를 가지고 강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여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타인에 대한 폭력의 정당화는 강간통념 수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 강간통념 수용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강간통념 수용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과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역할 관련 태도들 중 적대적 성신념, 성역할 이념, 대인폭력수용, 성역할 고정관념 등은 강간통념수용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보였다.
- 강간통념 수용에 대한 성역할 관련 태도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Lottes의 강간지지 척도에 대한 성역할 관련 태도들의 회귀분석결과에서는 적대적 성신념, 대인폭력수용, 역할규범에서의 강인성 등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ee의 강간통념 척도에 대한 성역할 관련 태도들의 회귀분석결과에서는 적대적 성신념, 성역할 고정관념, 대인폭력수용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Illinois 대학의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대한 성역할 관련 태도들의 회귀분석결과에서는 적대적 성신념, 대인폭력수용이 앞서 두 회귀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성역할이념과 강인성 유의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역할 관련 태도에서도 여자들에 비해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더 많이 나타내 보였다. 강간통념 수용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대적 성신념과 대인폭력수용은 강간통념 수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강간과 같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간통념 수용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기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의 제기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의 후속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강간통념 척도와 관련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Burt(1980)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Lee(1999)의 척도와 외국의 두 척도(Lottes, 1988; Payne, Lonsway, & Fitzgerald, 1999)가 성역할 태도들과의 관계 규명을 위해 각각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들 각각의 척도들에서 빠진 통념 내용들을 서로 보완한 통합적인 새

로운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보다 신경을 써야할 문제는 이러한 통념과 태도들이 과연 성폭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추후 연구에서는 공격적 성행동과 같은 실제 행동과의 관계성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Analytical report on crimes. (2003). Seoul: Supreme Prosecutor's Office.
- Bohner, G., Siebler, F., & Schmelcher, J. (2006). Social norms and the likelihood of raping: Perceived rape myth acceptance of others affects men's rape proclivity. *Pers Soc Psychol Bull*, 32(3), 286-297.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 for rape. *J Pers Soc Psychol*, 38, 217-230.
- Carmody, D. C., & Washington, L. M. (2001). Rape myth acceptance among college women: The impact of race and prior victimization. *J Interpers Violence*, 16(5), 424-436.
- Field, H. S. (1978). Attitudes toward rape: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e, rapists, crisis counsellors, and citizens. *J Pers Soc Psychol*, 36(2), 156-179.
- Im, J. B., & Chung, H. J. (1997). *Sex role and woman*. Seoul: Hakjisa.
- Kalin, R., & Tilby, P. J. (197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x role ideology scale. *Psychol Rep*, 42, 731-738.
- Kim, K. H., Jeon, M. S., & Kim, S. K. (2004). Relationship of sexual attitude, sexual identity and sexual permissiveness in junior high school girls. *J Korean Acad Fundam Nurs*, 11(3), 353-360.
- Kim, S. Y. (1989).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common notions on rap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oss, M. P., & Dinero, T. E. (1987). Predictors of sexual aggression among a national sample of male college students. *Ann N Y Acad Sci*, 528(1), 133-147.
- Lanier, C. A. (2001). Rape-accepting attitudes: Precursors to or consequences of forced sex. *Violence Against Women*, 7(8), 876-885.
- Lee, G. H., & Kang, H. J. (2005). The relations among rape myth, types of sex role, and exposure to sexually obscene material. *Korean J Psychol Soc Issues*, 11(3), 23-40.
- Lee, S. J. (1999). Development of rape myths scale. *Korean J Soc Pers Psychol*, 13(2), 131-148.
- Lee, S. J., & Choi, S. C. (2001). Rape myths acceptance and violent sexual behavior. *Korean J Soc Pers Psychol*, 15(1), 97-116.
-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 Women Q*, 18, 133-164.
- Lottes, I. L. (1988). Rape supportive attitude scale, In Davis, C. M., Yarber, W. L., & Davis, S. L. *Sexuality-related measures: A compendium*. Graphic Publishing Company,

- Lake Mills, Iowa. 235-236.
- Malamuth, N. (2002, June). *Understanding the impact of pornography exposure within an integrative model of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aggressors*.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Annual Social Science Conference, University of Hawaii, Hawaii.
- Malamuth, N., Check, J. V. P., & Briere, J. (1986). Sexual arousal in response to aggression: Ideological, aggressive, and sexual correlates. *J Pers Soc Psychol*, 50(2), 330-340.
- O'Donohue, W., Yeater, E. A., & Fanetti, M. (2003). Rape prevention with college males: The roles of rape myth acceptance, victim empathy, and outcome expectancies. *J Interpers Violence*, 18(5), 513-531.
- Payne, D. L.,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9). Rape myth acceptance: Exploration of its structure and its measurement using the Illinois rape myth acceptance scale. *J Res Pers*, 33(1), 27-68.
- Rapaport, K., & Burkhart, B. R. (1984). Personality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sexually coercive college males. *J Abnorm Psychol*, 93(2), 216-221.
- Sim, J. S. (2001). *The distinction between adolescent sex offenders and adult sex offen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Sinn, J. S. (1997). The predictive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masculinity ideology. *J Res Pers*, 31(1), 117-135.

The Influence of Gender-Role Related Attitudes to the Acceptance of the Rape Myth

Kim, Aeelee¹⁾ · Park, Cheongyeul²⁾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2) 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acceptance of the rape myth and variables in gender-role attitude, which have been known to forecast the acceptance of the rape myth. **Method:** This study was a survey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 2006 to February 31, 2007 with 240 undergraduate students.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12.0 program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Men were more acceptable to the rape myth than women. Men were very likely to see the occurrence of rape incidents as the rapist being provoked by women, and this attitude made them misunderstand and perceive women as responsible for the occurrence of the incident. Women on the other deny their idea.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in attitudes related to gender-role, male students were shown to have a much more traditional and patriarchal attitude than female students.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a hostile attitude toward women and the justification of violence to others act as the main factors in forecasting the acceptance of the rape myth.

Key words : Rape, Gender—role, Attitudes, Sex differenc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Cheongyeul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Anam-Dong, Sung Buk-gu, Seoul 130-701, Korea
 Tel: 82-2-11-9778-2510 Fax: 82-2-380-3423 E-mail: lovepassion@korea.com